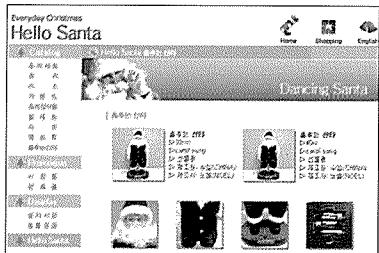


인터넷 속에 펼쳐진 크리스마스 세상

캐럴과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퍼지는 12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지만 제과인들은 이때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다.

한해 매출을 결정짓는 성탄절 제품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일손이 바쁘다 보면 매장 데코레이션을 위한 꼼꼼한 소품준비는 자칫 무심해지기 쉽다. 발품 팔 필요없이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이런 걱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갖가지 종류의 소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많아 잠시 클릭 몇 번만 하면 점포를 훌륭하게 꾸밀 수 있다. 지금부터 인터넷 속 크리스마스 세상으로 들어가 보자. <취재·허윤정>

헬로우산타 www.hellosanta.co.kr



크리스마스 장식 소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 트리를 비롯해 각종 리스, 가랜드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드높일 소품들이 즐비하다. 은 은한 불빛이 감도는 램프를 이용해 점포 분위

기를 로맨틱하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 출주는 산타 인형으로 화려한 파티 기분을 내는 것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실'에 글을 올리기만 하면 즉각적인 답변을 해준다. 대형 트리, 리스, 조명 등의 조형물을 신청하면 본사 직원이 직접 설치해준다. 물건 판매 뿐 아니라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해 많은 제과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산타 www.i-santa.co.kr



다양한 성탄절 장식품을 구비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 양초, 장식용 볼, 꽃장식 등 액세서리 종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공동구매로 10% 이상 싼값에 제품을 구입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왼쪽 바에 나와있는 제품 목록 중 '업소용'을 누르면 제과점에서 제작을 톡톡히 할 데코레이션 용품이 가득하다. 트리가 있는 유리 상자 안에 눈이 날리는 '눈내림트리'는 이미 품질될 만큼 인기가 높았던 상품. 점포를 찾는 고객들에게 눈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미리 선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게시판에 재입고를 요청해 매장 분위기를 근사하게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빌리프아트 www.dp-flow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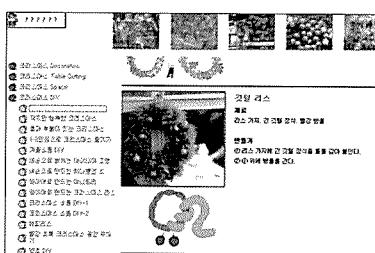


다른 쇼핑몰과는 달리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장식 인형을 선보인다. 사람보다 큰 산타클로스부터 작고 귀여운 사슴까지 온갖 종류의 인형이 갖춰져 있으며, '눈내린 소나무 트리' 등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도 눈에 띈다.

'빌리프아트'는 남다른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다. '온라인 견적서'만 작성하면 구매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메일 매거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양질의 제품과 세심한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성탄절 준비가 더욱 즐겁다.

크리스마스에는 user.cholian.net/~beaknc/christmas



멋진 크리스마스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알찬 사이트. 데코레이션, 테이블 세팅, 요리 등 각각의 카테고리가 익을거리, 볼거리로 가득하다. 특히 '크리스마스 데코레

이션'에는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테이블 세팅'과 'Space' 등의 아이콘에도 안목을 높여줄 세련된 스타일의 아이템이 풍부하다.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그림이 나와있는 '크리스마스 DIY'는 예쁜 리스, 트리, 카드 등 고객들에게 직접 만든 정성까지 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제과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콘이다.